

종합·해설

모바일투표 文·대의원투표 孫 각각 1위

■ 민주 경선 후보별 득표 중간 분석

文 “모바일은 민심 반영”...非文 “당심 애국” 논란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경선이 반환점을 목전에 둔 가운데 모바일투표에서는 문재인, 순회투표와 투표소투표에서는 손학규 후보가 각각 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지난 2일까지 전국 13곳 순회경선 중 6곳의 경선을 마무리한 결과, 문 후보 득표율이 46.2%로 선두를 달리고, 손 후보(25.8%), 김두관 후보(14.7%), 정세균 후보(13.3%)가 뒤를 잇고 있다.

이 득표율은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모바일투표자와 오프라인 투표를 신청한 투표소투표자, 경선 당일 유세 현장에서 대의원이 참여한 순회투표자를 합산한 수치다. 모바일투표는 일반 유권자, 투표소투표는 당원과

일반 시민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3일 현재까지 투표 양상은 모바일투표의 경우 문 후보가 47.8%로 압도적 선두를 지키고, 손 후보가 25.4%로 안정적 2위에 올랐으며, 김 후보(14.6%)와 정 후보(12.2%)가 뒤쫓고 있다.

반면, 가장 층심도 높은 당원인 대의원 표심을 알 수 있는 순회투표에서는 손 후보가 35.1%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고, 문 후보 24.9%, 정 후보 20.2%, 김 후보 19.8%로 '1강3중' 구도를 보였다.

투표소투표에서는 손 후보 28.7%, 정 후보 28.6%, 문 후보 27.0%, 김 후보 15.7%로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모바일투표와 순회투표가 각각 민

■ 민주 대선경선 유형별 득표현황

	모바일투표	투표소투표	순회투표	합계
정세균	12,172(12.2%)	1,961(28.6%)	372(20.2%)	14,505(13.3%)
김두관	14,597(14.6%)	1,073(15.7%)	366(19.8%)	16,036(14.7%)
손학규	25,449(25.4%)	1,962(28.7%)	648(35.1%)	28,059(25.8%)
문재인	47,910(47.8%)	1,851(27.0%)	460(24.9%)	50,221(46.2%)

※ 전체 13개 경선중 제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인천 등 지금까지 실시된 6개 경선 결과를 취합한 것임. ※ 후보는 기호순.

심과 당심을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투표소투표는 일반 유권자와 권리당원이 섞여있어 민심과 당심의 혼합적 성격이 있다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전체 투표자 중 모바일투표자 비중이 92.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전체 투표자 중 투표소투표자와 순회투표자 비중은 6.3%, 1.7%에 불과했다.

후보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 측은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비문(非文·비문재인) 후보들은 애초부터 경선규칙이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경선률의 불균형성을 재차 지적하면서 당심이 민심과 괴리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손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은 “모바일투표가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경선 과정에서 술한 문제점을 드러냈음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현직 전남도의원들이 3일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학규 대선 경선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현직 도의원 43명, 광주·전남 기업인·교수 400명 등

‘화합 적임자’ 손학규 지지 선언

전·현직 전남도의원 43명과 ‘광주·전남 미래산업 비전 포럼’ 소속 기업인·교수 400여명, 광주지역 민주·원로인사 24명이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경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남도의회 윤시작 운영위원장 등 전·현직 도의원 43명은 이날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며 “지역적·이념적 한계를 넘어 참

조적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펼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가 선출돼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또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문제와 사회적 약자를 중시하는 후보, 평화체제의 대전환기 남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민주개혁운동권 출신이면서 학자 출신인, 또 현실정치 참여 경력과 경기도지사로서의 경륜 그리고 민주당 대표 재임시 ‘대통령

의 리더십’까지 갖춘 손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전·현직 의원 상당수는 중도 사퇴한 박준영 전남지사 측에 섰던 인사들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광주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69명이 손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광주·전남 미래 산업업 비전 포럼’ 소속 기업인과 교수 415명도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새 시대의 비전과 글로벌 추진력을 갖춘 손 후보를 지지한다”며 “준비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정권교체의 새로운 기적을 광주·전남에서 다시 한번 이뤄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소설가 문순태씨, 민병호 전남대교수, 박선홍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고문, 정환담 전남대 명예교수 등 광주지역 민주·원로인사 24명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통합형 지도자, 철학과 경륜을 갖춘 반듯한 지도자, 지역주의 벽을 깰 수 있고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지도자, 조각된 여론에 놓이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대통령감으로 손 후보를 내세우고자 한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본회의 통과

여야 3일 진통 끝 처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곡동 특검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시켰다.

이날 처리된 내곡동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 불균형성을 재차 지적하면서 당심이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해 인정한 사항 등이다.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양당은 특검의 특정 정당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했으며, 정당 당적을 가진 자와 가졌던 자는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렇게 될 경우 18대 대선이 무르익을 11월 중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의 특검 추천 조항에 대해 위험 논란을 제기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는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재적위원 16명 가운데 14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새누리당에서는 대선기획단 단장인 이주영 의원과 정갑윤 의원 등 표결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불심검문 부활은 공안통치”

“유신 회귀” 즉각 중단 촉구

민주통합당은 3일 아동 성범죄 등 강력범죄 대책의 하나로 경찰이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키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공안통치를 강화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강력범죄 검거율이 1%에 불과한 불심검문을 처방으로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민생치안보다는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통치 강화가 목적이아

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심검문은 이미 2년 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경고로 사실상 폐지된 제도”라며 “정치집회와 노동자 파업에 투입되는 2만5000여 의경들을 치안과 소방, 구조활동 등 재난과 범죄예방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민생치안 불안은 새누리당 정권의 민생파탄이 빚은 결과”라며 “새누리당 정권은 아동 성

범죄를 핑계로 공안통치 부활이나 꿈꿀 것이 아니라, 교육과 보건, 주거와 일자리 등 민생복지와 공공성 치유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묻지마 감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유신헌재 시절의 통행금지나 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불심검문 대책을 중단하고 근본적 사회안전망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검, 통합진보 관악역 아권 단일화

선진당, 안철수와 연대 긍정 검토

이정희 전 대표 비서 등 3명 기소

“제3지대 후보로 출마땀 적극 뉘겠다”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 아권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보좌진이 일반전화를 대량 설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3일 여론조사 조작 혐의(업무방해)로 이 전 대표의 이모(37·5급) 비서관과 조모(38·6급) 비서를 구속 기소했다. 또 여론조사 진행상황을 선거사무실에 실시간으로 알리준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모(53) 대의협력위원장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지난 3월17,18일 ARS 여론조사 당시 공병 7명과 함께 190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했다.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ARS 응답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0대 중 25대는 이 비서관이 직접 개설했다.

검찰은 190대 중 54대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했으며, 이 중 다 선거구에 거주해 응답 자격이 없거나 성별을 속인 사례가 44건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경매 틈새 노려라!...NPL 투자 ‘열풍’

부실채권(NPL)

!! IMF때 대박났던 부실채권 다시 인기 !!

!! 근저당권 매입 후 경매강당 수현만원~수익률 수익 !!

NPL이란?

NPL 투자란?

NPL투자의 매력은?

① 제3기 NPL최고전문가 과정 ①

♣ 개 강 : 9월 11일(화) ♣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 오전반(10시), 야간반(7시)

* 교육기간 : 9월 11일~11월 6일 / 2개월과정

실전투자 교수진

이 현 준 교수

* 한국NPL경제연구소장* 법무법인(비문길)자산관리팀장

* 다와옥신NPL실전투자교수

* PMG(박문각)부동산스쿨(강남.종로)NPL전임교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실무교육교수

특강 : 이영준교수(“부실채권과경매이야기”저자, PMG(박문각)부동산스쿨NPL전임교수)

◆**무료 공개특강◆**

내용	“NPL의전망과수익구조”
일시	* 9월7일(금) : 저녁7시/ * 9월8일(토) : 오전10시
해택	* 사전예약및당일접수 * 수강료10%할인/교재20%할인

Dawa (주)다와옥신 ☎ (062)352-8589(대)

『법원경매』의 집합!! www.dawauction.co.kr

남구 월산동 월교역 1번 출구 /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이지공인중개사

임야, 토지, 전답

▶광주 동구 선교동 뽕치배후단지 대지1014평(3353㎡)사정상 급매 대로 35m 도로접합, 투자가치높음, 매가21억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 산 14-1임야77,727㎡ (23,512평) 매가 평당5천원

▶광주 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46,596㎡ (1,412평) 매가평당100만

▶함평 나산면 잡종지 6차선 도로450m 접합 15,638㎡ (4,730평) 매가 평당20만원

▶곡성군 삼기면 월경지 임야 5만전평, 평당1만원 질터 및 연수원부지적합

매 매, 교 환 (토지, 상가, 임야)

▶장성 남면 2중거거지역 대지 660㎡ (200평)평당50만 창고주택공정적합

▶담양 봉산면 대추리 과수원 부지 대형차량 진입가능, 창고 공장,전원주택 적합

▶함평 나산면 초포리 12,990㎡ (3,930평)도로접,공장창고 전원주택등적합

▶나주군 봉황면 덕곡리 2차선 도로접, 전임야6,100평 매가 1억5천만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 590평 평당400만 중심상업지역 위치적합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 1,392㎡ (421평)년수익 5~6백만, 주말농장 전원주택 가축요지등 매가3,400만

▶장성을 덕진리 대로변 공장설립허가지역 창고, 전원주택, 공장등적합, 전10,100평

▶광주 서구 매월동 공구상가 부근 58,433㎡ (2,550평)매가평당90만

▶장성 서삼면 대곡리 대528평 (계회관리지역 도로여건 좋음)

▶화순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전원주택 펜션부지(전망 아주좋음)대210평 매가 평당70만

▶무안군 온남면 연리 개회관리지역 2700평 2차선 도로 120m접,지대높음 매가평당 15만

기타물건 다양보유

매가 평당15만

상가 주택등

▶장성 북하면 악수리 백양사 입구 모텔 및 식당 대800평 현성업종 매가17억

▶서구 화정동 연주시거리부근 상가주택 준거거지역 대90평,건148평 보7천만 월540만 매7억

▶서구 중앙동 상업지역 최고상권 대121평 건524평,보1억8천만,월수1150만,매18억 5천만 지하1 지상5층

▶광산구 흑석동 대로변 상가 매가 22억 (중,보5억 포함)월수익1400만

▶동구대인동 대로변 사거리교 너사가 매가12억5천만(중,보 5억2천 포함)월수익1,100만

▶광산구 흑석동 월곡동 우산동 수완동 신가동등 원룸매매(5억~8억선다량보유)

전 화 : 062-268-2834

H P : 010-6460-2834

수익성 최 상

① 키즈테마카페임대

• 카페, 파티룸, 뷰티샵등

• 면적 : 2,400㎡(725P)

• 주차 500대

• 보증금 3억/월1,800만

②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돌잔치,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 2,824㎡(854P)

• 주차 500대

• 보증금 4억/월2,200만

③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290P)

• m당 145만

• 150세대, 15층

• 14억 투자 = 수익11억

④ 25억 = 월2,400만

• 대지1,342㎡ 건물 5,700㎡

• 보증금 4억 / 월 4,400만

• 매매65억

010-3666-4646

경매투자

1. 경매 배우면서 수익 내실본

특수물건/NPL물건만 전문 취급

교육비/임장활동비 등 회비 550만원

2. 매수 일괄 대리

정확한 권리분석 → 최저낙찰

빠른 명도 → 최상의 대출

임대 → 매매까지

3.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본!

제1순위 근저당으로 법적 보장

년 10~30% 최고의 수익률

단독 공동투자 가능

(주)오천경매 H.010-3605-5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